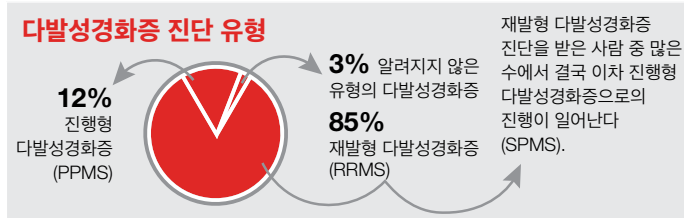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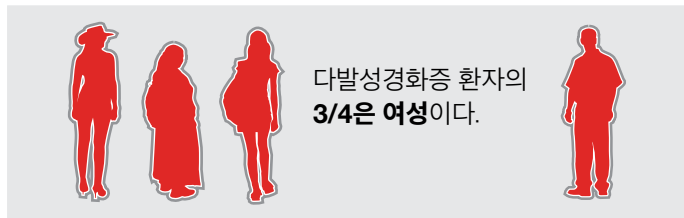


다발성경화증에 관한 주요 사실과 통계



다발성경화증(MS)은 중추신경계(뇌, 척추, 시신경)를 공격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의 진행과 심각도, 구체적인 증상 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평생 앓게 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일상적인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찾아 내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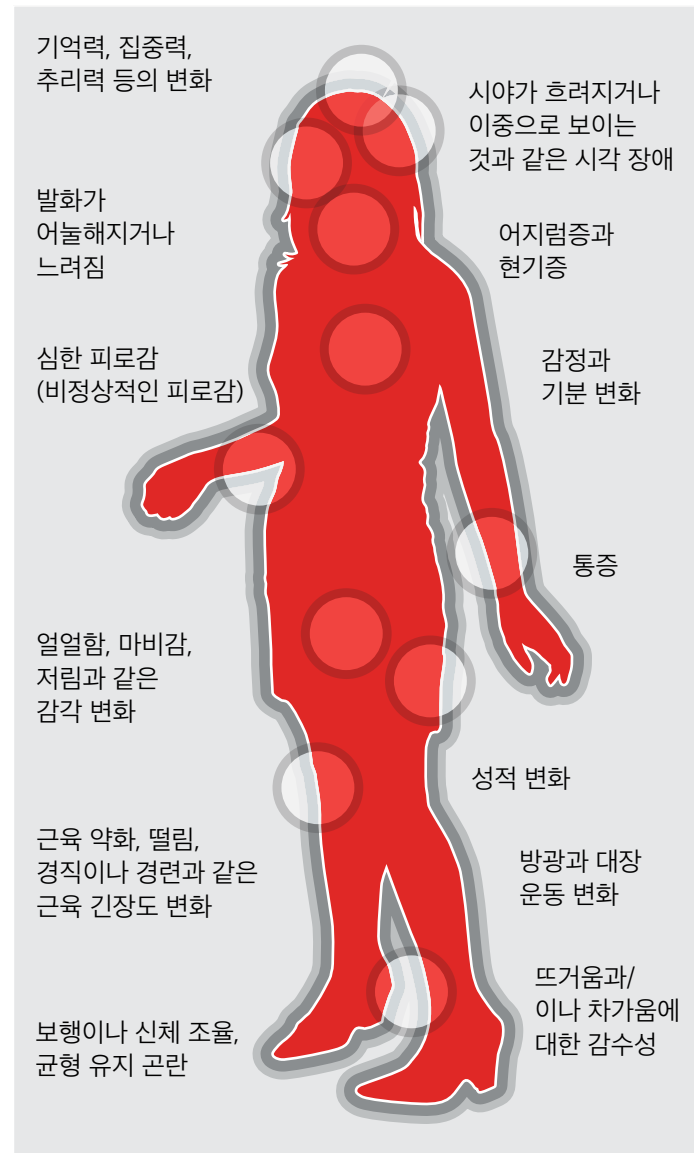
다발성경화증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



다발성경화증의 일반적 증상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 환자에게서도 시간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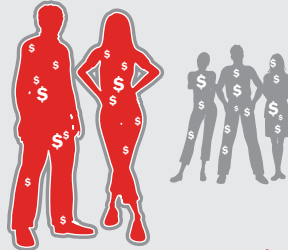
다발성경화증의 경제적, 개인적 비용

\$1,750,000,000

다발성경화증은 2017년, 호주 지역사회에 17억 5천만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다발성경화증의 일인당 평균 비용은 **\$68,382**로 집계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1년차 환자의 비용과 유사한 수준...



...제2형 당뇨병 환자 비용의 **3배**



*개인 및 사회적 비용 모두 포함



다발성경화증 총 경제 비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 중 임금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0%에서 현재는 32%에 그치는 수준

평균적으로 2017년, 호주 내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삶의 질은 전체 호주 국민의 삶의 질에 비해 **31% 낮은** 수준



중증 장애를 가진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삶의 질은 장애가 없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삶의 질에 비해 **41%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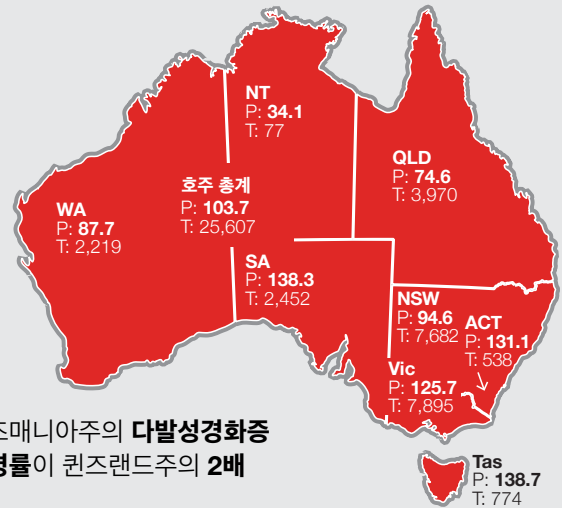
주로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한 통증과 다발성경화증이 독립적 생활과 정신건강,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

다발성경화증의 유병률



호주 내 다발성경화증의 유병률은 2010년 10만명당 95.5명이었던 데 비해, 2017년 103.7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를 반영한다

거주지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이 증가한다



타즈메니아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이 퀸즈랜드주의 2배

인구 10만명당 다발성경화증 유병률(P)과 다발성경화증 총 환자 수(T)

다발성경화증 환자 64%가 질병 완화 치료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이래 40% 증가한 수준이다



*다발성경화증의 재발 건수와 중증 정도를 감소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둔화 또는 중지시키는 약물

전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흡연, 비타민D결핍, 비만, 선열의 영향을 통제하면 다발성경화증 발병의 6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다발성경화증의 90%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참고문헌

1. 호주 내 다발성경화증의 보건 경제적 영향에 관한 2017년 보고서. MS Research Australia의 연구 위탁에 따라 타즈메니아 대학의 멘지즈 보건 연구소에서 준비함. 2018년 8월 출간.
2. Amato M. 외. (2018).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환경적 변형 위기 요소: 2016ECTRIMS 집중 워크샵 결과 보고서. Multiple Sclerosis Journal, Vol 24-5.
3. 다발성경화증 국제 협회. (2020). 2020년 다발성경화증 지도. www.atlasofms.org

다발성경화증과 MS Australia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www.msaustralia.org.au